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음 7월 17일) 제162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한옥마을, 휴가철 관광지로 인기

모바일네비게이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고택·생가·유적지 등 부문서 각각 1~2위 차지
이달 첫주 경기전 관람객 평시보다 2.5배 늘어
한옥마을 외 이목 집중시킬 새관광지 조성 시급

전주한옥마을이 모바일 네비게이션 검색 순위에서 이번 여름 휴가철 관광지 주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북은 전주한옥마을을 제외하면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관광지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 새로운 관광지 명소 만들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6일부터 지난15일까지 한 달 동안 티맵과 카카오내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휴가지(목적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다.

이 기간 동안 티맵과 카카오내비 전체 검색량은 1억6,600만건이 넘었다.

티맵은 해수욕장, 레저시설, 아울렛·쇼핑몰, 관광명소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분석했고, 카카오내비는 해수욕장, 폭포·계곡, 고택·생가·민속마을·유적지, 놀이시설·수영장, 자연휴양림·산립육장·동식물원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분석했다.

올 여름 티맵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은 '관광명소 부문'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이 '경기 광명동굴'에 이어 두 번째로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 거제외 바닷의안터', '강원 평창의 대관령 양떼목장' 순으로 많이 찾았다.

'해수욕장'은 강원도 속초해변(해수욕장)으로 나타났는데 이어 충남 보령의 대천해수욕장, 강원 강릉의 경포해수욕장, 부산 해운대(4위) 순으로 많이 찾았다.

'놀이시설 부문'에서는 강원 홍천의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경기 용인의 캐리비안베이 및 에버랜드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아울렛·쇼핑센터 부문'에서는 경기 광명의 이케아 광명점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경기 성남의 현

대백화점 판교점, 경기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순으로 많이 찾았다.

카카오내비 이용자들은 '고택·생가·민속마을·유적지 부문'에서 '전주한옥마을'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이 찾았다.

'해수욕장 부문'에서는 지난해 순위 에 들지 못했던 인천 왕산해수욕장(6위), 제주의 협재해변(7위)과 월정리 해수욕장(8위) 등이 새로 10위권에 들었다.

'놀이시설·수영장 부문'에서는 서울 송파의 롯데월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충남 천안의 테넨패밀리워파크 순으로 인기가 많았다.

'폭포·계곡 부문'에서는 경기 양주의 송추계곡, 제주 서귀포의 천지연폭포, 경기 가평의 용추계곡 순으로 많이 찾았다.

'자연휴양림·산립육장·동·식물원 부문'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남 담양의 죽녹원과 경기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이 인기가 높았다.

네비게이션 최다 검색을 반영하듯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라면 한 번쯤은 방문하는 경기전 외부 관람객도 대폭 늘었다.

지난달 4일부터 9일까지 경기전을 관람한 외부 유료관광객은 4,890명이었지만 휴가철인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방문한 관람객은 이를 훌쩍 뛰어넘은 1만3,418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휴가 극성수기인 이 기간에 평상시의 2.5배를 웃돈 관람객이 다녀갔다"면서 "65세 이상은 무료인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토·일요일신문 읽는다.



휴식 중

전국이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18일 오전 멸종위기동물 2급인 검은머리갈매기가 어느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개성공단 협력업체 "정부, 실질적 보상책 내놓아야"

개성공단 원·부자재 납품 협력업체 대표들이 정부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16면>

개성공단 원·부자재 납품 협력업체 대표들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피해대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유동자산 보상책이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5월 27일 정부는 피해확인 금액에 대해 최대 70%의 정률제에 더해

22억 원 한도로 보상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외관련, 납품 협력업체 대표들은 "협력업체들이 피해 신고를 한 금액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 피해 금액을 축소했다"며 피해확인 금액조차도 전액 보상이 아닌 70%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도를 22억 원으로 묶는 것은 개성공단 정상 가동을 보장한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을 해온 협력업체를 결과적으로 사지로 내모는 무도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뉴스

社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의 대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제능과 열정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지역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전주매일이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 자세를 겸비한 인재를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분	모집인원	자격조건
취재기자(경력·수습)	본사 0명	일기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 접수기간 2016년 8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4층
문의전화: 063-288-9700(본사 총무팀)
e메일: jjmaeil1@hanmail.net

전주매일

전주시, ACL 전북현대 중국 원정경기 시민 응원 지원

“아시아 재패 기원해요”

리그 3연패와 아시아 대륙 재패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전북현대 모터스축구단의 201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이하 ACL) 8강 1차전 중국 원정경기를 위해 전주시(시장 김승수)가 발 벗고 나섰다.

전북은 오는 28일 중국의 상하이 스타디움에서 상하이 상강과 ACL 8강 1차전 경기를 치른다.

전주시는 중국 현지 응원에 참석하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 잔디밭에 대형 스크린과 음향 시설을 설치해 거리응원을 준비했다. 전북현대의 공식 후원업체인 하이트맥주 역시 거리에 나와 응원하는 시민을 위해 맥주 무료 시음회를 준비해 지원하기로 했다.

거리응원을 기획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 달여 동안 전북현대의 흥겨움이 없어 매우 아쉬웠는데, 이런 중요한 경기에 전북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정말 기쁘다"며 "많은

분들이 승리를 위해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북현대 명예홍보대사로써

전북의 K리그 우승과 ACL 재패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한편, 원정경기에 임하는 전북은 중국무대를 1년간 경험하고 온 에두를 필두로 공격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원은 두터운 스쿼드 안에서도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 잡은 이재성-김보경-이호의 출전이 유력하다. 상대적으로 수비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원정경기에서 전북은 모험적인 투톱 전술보다는 안정감 있는 4-3-3 전술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과연 팬들의 거리응원을 등에 업은 전북이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상하이 원정을 이겨내고 홈에서 편한 마음으로 2차전을 치를 수 있을지 경기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민근 기자

2016 리우올림픽 → 관련기사 13면

▶ 매일 INDEX

2면 '누리예산 별도 재원 확보를'

3면 김춘진, 내친 김에 최고위원까지?

국립세종시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이 도시 품격의 전주